

# 사서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속교육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tinuing Education to Enhance the Specialization of Librarians

임 등 빈(Dong-Bin Lim)\*\*

### 목 차

- |                        |                              |
|------------------------|------------------------------|
| 1. 서론                  | 3. 2 데이터의 수집 방법과 절차          |
| 2. 계속교육의 이론적 배경        | 4. 데이터의 분석과 고찰               |
| 2. 1 계속교육의 의의와 유형      | 4. 1 직력에 관한 분석               |
| 2. 2 사서 계속교육의 발전과 현황   | 4. 2 계속교육에 대한 경험과 현황 분석      |
| 2. 2. 1 외국의 계속교육       | 4. 3 환경적 요인 분석               |
| 2. 2. 2 한국의 계속교육       | 4. 4 계속교육을 위한 개인적 분석         |
| 2. 2. 3 국제도서관 연맹의 계속교육 | 4. 5 계속교육에 대한 의견, 요구, 제언, 분석 |
| 3. 연구방법과 내용            | 5. 결론 및 제언                   |
| 3. 1 측정 도구의 개발         |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현직 사서들의 전문성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속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설문지를 통하여 현직사서의 직력, 계속교육에 대한 경험, 현황, 의견, 요구, 제언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교육의 참여도는 전체적으로 부진하며 도서관 유형과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둘째, 계속교육 주관처의 평가는 부진하였고, 유용성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셋째, 계속교육을 위한 개인적 노력은 부족하며 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넷째, 비정규 계속교육은 컴퓨터와 관련된 주제로 근무시간과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다. 끝으로 계속교육 발전을 위해서 전담기구의 설치, 주관부처별 평가제도의 확립, 특성화한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과 연구에 대한 성과급 제도의 도입, 해외연수의 적극적인 추진, 새로운 계속교육 방식의 도입, 정규 계속교육의 확대 등을 제언한다.

###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systematic, effective ways of providing continuing education for incumbent librarians in order that they could be more specialized in their profession.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 performed pervious literature research and then a questionnaire survey for those librarians to determine their service periods and opinions, requirements and suggestions about continuing education as above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education.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described as below.

First, few incumbent librarians generally participate in continuing education. The participation, if any, is different in degree according to types of the librarians' library and task. Second, continuing education provided by responsible agencies is seen negative in value, but relatively positive in validity. It is agreed that the education is not easy to be provided due to a lack of time. Third, individual incumbent librarians are little devoted to continuing education, although the devotion is somewhat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library. Fourth, an absolute majority of the librarians want the establishment of an authorities exclusively assuming continuing education service and the provision of informal continuing education related to computer during their working hours or vacation period. Fifth, the librarians under surve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continuing education to establish an exclusively responsible authorities as mentioned before and a system for evaluating each of agencies providing continuing education service, implement relevant, specific programs, introduce incentives for those librarians who receive the education and thereon make studies, help and promote librarians to be trained abroad, apply new ways of continuous education and extend the range of such educational process.

키워드: 계속교육, 사서직 전문성, 계속교육 발전, 계속교육 사례연구

\*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 동부산 대학 문헌정보과 교수(dblim@cesb.sulbong.ac.kr)  
논문접수일자 2001년 11월 9일  
게재확정일자 2001년 12월 7일

## 1. 서론

1980년대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문헌정보 업무에 적용되면서 우리나라의 도서관 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조류 속에서 사서들은 과거의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지식만으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능력을 요구받고 있는 사서들에게는 지속적인 계속교육을 통하여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적인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서들이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속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 2. 계속교육의 이론적 배경

### 2.1 계속교육의 의의와 유형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이란 일반적으로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용어로 영구교육, 항구교육 등으로 표현이 가능하나 계속교육의 의미는 학자나 국가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 용어 등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은 성인교육(adult education)으로, 영국은 미래교육(further education)으로, 일본은 生涯教育으로, 중국은 補習教育으로, 우리나라는 통상 平生教育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계속교육이란 일정한 전문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발전과 확장을 위하여 개인 각자가 선택한 일체의 학습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교육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계속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계속교육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며, 둘째 계속교육은 이용자 및 환경의 변화를 사서 자신이 수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하며, 셋째 계속교육은 문헌정보학 지식의 본질과 성장 측면에서 필요하다.

#### 2.1.1 계속교육의 유형

계속교육은 실시하는 시간, 장소, 방법,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Stone(1974)은 계속교육의 유형을 첫째 사서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교육형태로 대학원과정 및 연수, 강습 등의 과정, 둘째 전문인들 간에 서로 이루어지는 학술회의, 초청강연회, 토론 중심의 도서관 내부강의나 실습, 셋째 독서, 세미나 참석자들의 보고 등을 통한 자기학습의 형태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속교육의 유형을 크게 정규계속교육(formal continuing education)과 비정규계속교육(informal continuing education)로 나누어 고찰했다.

## 2. 2 사서 계속교육의 발전과 현황

### 2. 2. 1 외국의 계속교육

#### 2. 2. 1. 1 미국의 계속교육

##### 1) 정규계속교육

미국의 문헌정보학 공식교육은 1887년 Melvil Dewey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나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아닌 수업시간, 교수, 교과과정 등의 일정한 기준이 없이 실습위주로 이루어져 전문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 되었다. 1925년에 ALA는 Board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를 설치하여 도서관학과의 인가를 위한 "The Minimum Standard for Library School"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과거 기준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1951년에 "Standards for Accreditation"이 공포되면서 전문직 자격을 석사학위 이상으로 결정했으며, 1970년에는 "Library Education and Manpower"를 발표하여 정사서를 Librarian과 Senior Librarian으로 구분하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였다. 미국은 1997년 현재 56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 19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15개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과정 사이에 6년제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1982년 이후부터 사회적 변화로 학과의 통폐합 현상이 나타나 학위 과정의 다양화, 학과명칭의 변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생존전략을 찾고 있다.

##### 2) 비정규 계속교육

미국 사서들을 위한 비정규적 계속교육 활성화의 계기는 1972년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

NCLIS에서 미래의 정보요구 충족 문제에 대한 지역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서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확인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NCLIS의 지원으로 과거의 계속교육에 대한 단편성, 중복성, 표준의 결여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밝혀내는 연구보고서 "Continu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이 나오게 되었다(조호일, 1992). 이 결과로 탄생한 기구가 Continuing Library Education Network and Exchange : CLENE인데 설립목적은 사서들에게 전문가의 능력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데 있다.

##### (1)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도서관은 목록사서들을 위한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관리업무, 기술목록, LISA와 OCLC이용법, 주제분석, 목록시 발생하는 문제점, 연속간행물과 비도서자료의 목록기술 등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Carter, 1987).

Alabama Public Library는 1977년부터 각종 지역단체들의 협조 아래 공공도서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 도서관은 "In the Library Trustee : Practical Guidebook"을 간행하고 있는데, 이 책자에는 계속교육의 방향과 주제와 실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어 계속교육의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Stephens, 1992).

##### (2) 전문 협회 및 학회에서 실시되는 교육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ALA는 현재 11부서와 19개의 Round Tables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Stone에 의하여 설립된 CLENE이 Round Table로 운영되어 사서들의 계속교육에 대한 정책수집 및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CLENE는 1980년 Criteria for Quality를 발표하여 계속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를 시도했다. ALA는 이것을 재편성하여 1988년에 ALA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현재 계속교육 활동의 종합요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ALA, 1980). 뿐만 아니라 ALA Steering Committee는 1999년 6월에 Steering Committee on the Congress on Professional Education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사서의 자격 강화 및 사서 계속교육 지원에 관한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ALA, 1999).

- 첫째, Post-MLIS의 과정을 개발.
- 둘째, 계속교육과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관 설립.
- 셋째, 회의 형식을 중심으로 세미나와 워크샵을 실행.
- 넷째, 계속교육 이수자에게 혜택을 부여.
- 다섯째, 교육과 경력에 부합하는 역할 및 업무 배정.
- 여섯째, 다양한 언어, 인종, 문화에 특별한 관심의 필요성 등이다.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 ASIS는 설립 초기부터 사서들의 계속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1961년부터는 Tutorial Session이 연차회의에서 정규적 형태로 발전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1975년부터는 Tutorial 대신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Workshop”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1976년에 계속교육의 워크샵을 통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ASIS 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이러한 활동은 정보학의 공식, 비공식 교육에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Varleis, 1999).

(3) 문헌정보학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Associ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 ALISE에서는 1981년에 발표한 “Policy Statement on Continu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에 의하여 회원 대학들에게 사서들을 위한 계속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였다. 그 결과로 많은 대학이 계속교육조정자(Continuing Education Coordinator)를 임명하여 ALISE Directory에 발표, 그 활동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에서 사서들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였다.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은 도서관리기법, 서지검색, 자료보존, 도서관 건축 등에 관한 교육을 연간 20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University of Texas에서도 데이터베이스 검색, 자료분류, 인터넷 운영 등에 대하여 연간 15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Josephine, 1995).

University of Illinois와 Illinois State Library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터넷 분야의 계속교육에 매년 1,000명 이상의 사서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교육의 형태는 주로 워크샵으로 실시되고 있다(Rusch-Feja, 1997).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의학사서들을 위하여 간호, 약학,

학교공중위생 등에 관한 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Smith, 1996).

## 2. 2. 1. 2 영국의 계속교육

### 1) 정규계속교육

영국은 1877년 도서관협회의 창설을 계기로 사서 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882년 정규회의에서 사서들을 위한 3단계(초급, 중급, 고급)의 고시제를 발표했다. 이 사서 고시제가 1885년 협회의 주관으로 처음 London과 Nottingham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나, 소수의 응시자들로 인하여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어 1893년 사서고시 준비과정으로 협회가 시간제강좌, 통신강좌, 서머 스쿨 등의 교육을 실시한 것을 영국 최초의 문헌정보학 교육으로 본다.

그 후 영국도서관협회(The Library Association)와 카네기재단의 협조로 1919년 문헌정보학 대학교육의 효시인 University College London에 School of Librarianship and Archives가 설립됨으로써 정상적인 대학교육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 전일제 교육이 확장되면서 1964년에는 협회의 관련 학교들이 완전히 교육시스템을 전일제로 변경했다. 이를 계기로 1967년부터 종합대학 문헌정보학과 출신자에 대한 사서시험을 면제하고 소정의 실무 경험을 거친 후에 사서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Dudley, 1995). 그리고 1980년 이후부터는 전문직 사서의 자격을 학사학위를 가진 자에게만 국한시켰다. 즉 1985년부터 도서관협회와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가 인가한

교과과정을 이수 후 해당 학위를 받으면 자격을 주었다(엄영애, 1997). 그러므로 영국의 사서자격의 인정은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누구나 가능하게 되었다.

### 2) 비정규계속교육

영국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항구적인 계속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인교육(Adult Education)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인 The Man Power Services Commission에서는 열린 기술프로그램(An Open Tech Programme)으로 성인근로자들의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직업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Crowley, 1996).

#### (1)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영국의 도서관들은 자체적으로 사서들을 위한 계속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국가도서관인 British Library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B.L은 매년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교육 주제분야를 결정하여 실행하는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워크샵, 세미나, 회의형식으로 교육을 실행하며 교육 기간은 주로 1~2일의 단기교육으로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각각 실시하고 있다.

#### (2) 전문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영국도서관협회의 계속교육에 대한 역할은 분과위원회나 지역의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교육을 주관하며, BBC, 방송국과 긴밀한 협조 속에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며, 사서교육을 위한 다른 전문직 단체와 긴밀

히 협조하여 계속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적극 노력한다.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Management : Aslib은 주로 공공, 산업, 경영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사서들을 위한 교육을 비정규과정으로 Public Courses와 On-Site Courses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Public Courses는 공공, 산업, 경영 분야의 정보탐색 기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On-Site Courses는 주로 사서들의 교양관리 측면을 교육하고 있다(Aslib, 1999).

(3)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재 영국에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대학은 19개에 이른다. 이 중에서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한 대학은 University of Sheffield를 비롯한 10개 대학이 있다 (Josephine, 1995).

### 2. 2. 1. 3 일본의 계속교육

#### 1) 정규계속교육

대학에서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1951년 경응의숙대학(慶應義塾大學)에서 시작하여 1996년 현재 전체 578개의 4년제 대학 중에서 문헌정보학과를 설치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총 8개로 4개의 국립대학과 4개의 사립대학에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석사과정은 5개 대학, 박사과정은 3개 대학에 설치 운영 중이다. 단기대학은 문헌정보학을 학과단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없으며, 다만 교육과정 중에 개설되어 있는 司書, 司書

補, 司書教諭(문부성 위촉) 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해당 자격증을 수여 받을 수 있다.

#### 2) 비정규계속교육

일본에서의 비정규계속교육은 1892년에 설립된 일본도서관협회를 통하여 비교적 다른 국가들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 (1)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岡山縣에 설립된 12개의 대학도서관들이 정보교환 및 연수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1982년에 연수회를 구성하여 1997년 1월 현재 회원은 56명으로 견학, 학습회,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매년 4회에 걸쳐서 회보를 간행함으로써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급하고 있다(土師裕子, 1997).

국립국회도서관은 매년 자체 연수 계획으로 계속교육을 실시하는데 1948년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연수는 신규채용 직원연수, 직원기초연수, 4급 연수과정, 7급 연수과정, 관리직 연수과정 등이 있다(本田千春, 1997).

##### (2) 학(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일본도서관협회(Japan Library Association : JLA)는 6개의 부와 25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1개의 단위도서관 관련 협회를 이끌고 있다. 특히 6개의 부 중에서 교육부에서는 사서들을 위한 계속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서들을 위해서 〈現代の圖書館, 1963~〉 〈圖書館雜誌, 1907~〉 등을 월간으로 간행하여 전국에 공급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연수

회도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개최되는데, 그 예가 〈東京都立高等學校司書會〉에서 개최하는 강좌로 고등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982년에 시작하여 주로 7,8월에 약 3일씩 주제별로 열리고 있다(伊藤弘子, 1997).

### (3)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

일본의 4년제 대학과 단기대학에서도 정부의 협조로 현직 사서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계속교육을 196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특히 富士大學校, 東京大學校, 圖·情大學校, 大正大學校, 愛知學院大學校, 桃山學院大學校, 別府大學校, 鶴見大學校 등의 4년제 대학에서 하절기 및 동절기를 이용하여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川瀨正幸, 1997).

## 2. 2. 1. 4 중국의 계속교육

### 1) 정규계속교육

중국의 문헌정보학 대학교육은 1920년 3월 최초로 武昌文華大學校에 圖書館科(1953년 武漢大學校에 편입)가 2년 과정으로 설립되었다. 이 영향으로 1927년 南京大學校를 선두로 金陵大學校, 大夏大學校, 河北大學校 그리고 국립대학교인 北京大學校 등에서 圖書館學科 및 圖書館專修科를 설치하게 되어 1956년부터는 武漢大學校가 北京大學校와 함께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문헌정보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가는 이 시기에 人民文化大革命(1966~1976)이 발발하여 문헌정보학 교육은 철저하게 침체되었다. 그러나 1978년부터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하여 1997년도 통계에 의하면 北京大學校, 武漢大學校 그리고 中國科學委員會에서 박사과정, 11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 24개 대학교에서 학부과정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40여 개의 학교기관에서 시간제, 학기제 등을 통하여 계속교육 차원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Xiaoying, 1997).

### 2) 비정규계속교육

중국에서의 현직 사서들을 위한 비정규계속교육은 보통 圖書館情報學業餘教育課程으로 통칭된다.

#### (1)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계속교육(圖書館業務講習班)

中國國家圖書館(National Library of China)은 1912년에 개관하여 1998년 현재 2,10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1979년 이후부터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중심으로 업무에 관련된 비공식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매주 일정한 근무시간에 수행되며 교육과목은 주로 정보학 관련 과목 및 도서관 경영, 도서관 건축, 자료보존, 정보조직 등이 교육되고 있다(National Library of China, 1999).

#### (2) 학(협)회에서 실시하는 계속교육

中國國家圖書館學會는 1979년 7월에 설립되어 4개의 위원회(학술연구위원회, 편역출판위원회, 교류합작위원회, 학회비서처)를 두고 부정기적으로 회원대표자회의(지금까지 5차)를 가져 문헌정보학의 당면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학술연구위원회에 교육 및 인재 양성전업위원회를 두고 사서들의 교육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중국도서관학회대회를 개최하고 있다(中國國家圖書館, 2000).

(3) 대학에서 실시하는 계속교육(圖書館業餘教育)

중국은 대학에서 현직 도서관직원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직능교육)은 1960년대부터 武漢大學校와 北京大學校에서 주·야간으로 처음 시작하였다. 위 대학교들의 교육과정은 통신교육, TV 방송, 단기교육과정, 방학과정 등이 개설되어 운영된다. 이 교육제도는 전공에 관계없이 중등학교를 이수하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학입학전국통일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워크샵, 훈련과정, 야간과정, 시간제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武漢大學校는 사서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전문훈련소를 1983년에 설립하여 단기훈련과정, 특별과정, 문헌정보학 교육자 양성과정, 특별인정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Feizhang, Qingbo, 1993).

2. 2. 2 한국의 계속교육

본 항에서는 사서(준사서, 정사서)들의 계속교육에 대하여 정규와 비정규로 나누어 정규교육에서는 현행 교육제도상의 실현 가능한 교육제도와 현재는 관련 과정의 부재로 실현 불가능한 교육제도로 나누어 기술하였고, 비정규교육에서는 도서관, 학(협)회, 대학, 기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 2. 2. 1 정규계속교육

1) 현행 교육제도상의 실현 가능한 교육제도

(1) 편입학(일반대학)

국내의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졸업생들이 상

위 학위를 받기 위한 정규 교육은 4년제 일반대학교와 개방대학 체제인 산업대학교로의 편입학을 통하여 가능하다.

(2) 산업대학교 편입(개방대학교)

산업대학교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평생교육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산업대학교는 1982년 서울산업대학교(개교 당시는 경기공업개방대학)를 효시로 하여 1999년 현재 전국에 총 21개의 산업대학교(국립 8, 사립 13)가 개교 중이다. 그러나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곳은 1984년에 개교한 광주대학교뿐이다.

(3) 사서교육원

사서교육원은 현직 사서들에게 1년 동안 야간에 교육을 수행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이다. 현재 국내에는 성균관대학교, 계명대학교 그리고 부산여자대학 등의 3개 대학에 사서교육원이 설립되어 있다.

(4)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하여 제1차 교육개혁방안에서 “열린교육체계,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을 위해서 도입되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운영본부에 누적되어 학점이 140학점 또는 80학점 이상이 되면 각각 대학교 졸업 또는 전문대학 졸업학력을 인정받는다.

(5) 시간제 학생등록제

시간제 학생등록제는 고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장인을 대상으로 재학생과 똑같이 수업을 받게 한 뒤에 이수가 되면 학점 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교에 모두 해당되며 학기당 9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여 향후 8~9년 후면 정규대학교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6) 대학원 석·박사과정

이 제도는 4년제 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정사서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위 학위를 위한 정규계속교육의 형태이다. 우리 나라에는 20개 대학교에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9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대학교의 교육대학원에 <사서교육전공> 석사과정이 마련되어있다.

2)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부재로 실현 불가능한 정규교육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고등교육기관이며 동시에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 이후에 전통적 대학교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진학하지 못한 성인들과 직업을 가지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직장인들에게 평생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평생 개발교육 기관이다. 교육과정은 인문과학부, 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교양과학부 등의 4개 학부에 18개 학과를 두고 있다(한국교육신문사, 1998).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獨學士)

이 제도는 1990년 4월 7일 법률 제4277호로 공포되어 1990. 12. 17일에 법률 제4227호로 개정 공포된 <독학취득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행되고 있다. 시험은 <국립교육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학과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총 11개 전공분야(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영학, 법학, 수학, 가정학, 행정학, 유아교육과, 전자계산학, 농학)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3) 인터넷을 통한 학사취득

1998년부터 원격대학교(Cyber University) 설립을 추진하여 대학들과의 공동노력으로 2000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끝내고 2001년 3월부터 한국사이버대학교 외 학사학위과정 6개 대학, 전문학사 학위과정 2개 대학 등에서 신입생을 선발했다(조선일보, 2000).

2. 2. 2. 1 비정규계속교육

(1)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계속교육

국립중앙도서관은 독서진흥법 2장 6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 및 문고 직원에 대한 연수 기능에 의거하여 현직 사서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의 <사서교육과정>은 도서관법 시행규칙(지금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문헌정보학의 강습기관으로 지정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헌정보학의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하여 사서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소정의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개설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일정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1967년부터 1986년까지 약 20년 동안에 준사서 : 1,546명, 정사서 452명을 각각 배출하였으나 1986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제도는 폐지되고 말았다.

현 <사서직급별 교육훈련과정> 초급, 중급,

고급 사서 및 도서관과 관련 있는 분야에 근무하는 인적자원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제도로 1983년부터 1997년까지 63회에 걸쳐서 5,065명의 사서가 이수하였다.

(2) 학(협)회의 계속교육

국내에도 많은 문헌정보학 학(협)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학(협)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의 미숙으로 사서들에게 필요한 계속교육을 위해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1~2회 정도의 학술세미나 개최 및 학(협)회의 학술지 및 회원 상호간의 소식지인 뉴스레터 간행 등이 활동의 대부분이다.

(3) 대학에서 실시하는 계속교육

국내의 현직 사서들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는 없으나 성균관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사서교육원>에서는 일종의 계속교육의 일환으로 현직 사서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정을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한국사서교육원, 1999).

(4)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계속교육

산업기술정보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서 사서들에게 필요한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2. 3 국제도서관연맹의 계속교육

International Federation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 IFLA는 국제적인 도서관 연합체로서 1999년 현재 약 140개 국이 가입하여 도

서관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IFLA의 조직은 5개의 핵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8 Division과 33 Section, 그리고 12 Round Table로 구성되어 있다(IFLA Directory, 1997). 특히 12개의 Round Table 중에 계속교육 발전을 위해서 Continuing Profession Education Round Table : CPERT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IFLANET, 2001).

사서들의 계속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CPERT는 1998~2001년까지의 운영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문헌정보학 교육자와 실무자의 계속교육을 위한 국제적 협력 지원, 둘째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자격을 통해 전문적 지위 확보, 셋째 범세계적 문헌정보학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디렉토리 제작을 지원, 넷째 IFLA의 다양한 문화행사의 지원, 다섯째 개발도상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자들에게 전문성 개발 기회 부여, 여섯째 혁신적인 교과과정의 개발 및 창의적 강의방법 개발에 대한 정보제공, 일곱째 새로운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성 개발 기회 제공 등이다.

### 3. 연구방법과 내용

#### 3. 1 측정도구의 개발

첫째, 선행연구에 의하면 직력에 따라서 사서들의 계속교육 환경이 다양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ydston, 1992 ; Burgin, 1992 ; 김경진, 1987 ; 김경대, 1990 ; 박정아, 1994 ; 이수인, 1994 ; 김일, 1995 ; 박애경, 1995

; 윤소정, 1997; 이선경, 1997).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설문에 6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Senkvitch과 Wolfram, 1996; 박애경, 1994; 이수인, 1994; 김일, 1995; 윤소정, 1997)에 의하면 계속교육에 대한 경험과 현황이 사서들의 계속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교육에 대한 경험과 현황조사를 위해서 위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설문에 10개 문항을 제시했다.

셋째, 선행연구(Boydston, 1992; Tjurnas, 1995; Weingrand, 1997; 김경진, 1983; 김경대, 1990; 김일, 1994; 박정아, 1994; 이수인, 1994; 박애경, 1995; 윤소정, 1997; 이선경, 1997; 장혜란, 1997; 한복희, 1998)에 의하면 사서들의 직력에 따라서 계속교육에 대한 의견과 요구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서들의 계속교육에 대한 의견, 요구, 제언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위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설문에 10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넷째, 문항 III-9에 향후 사서들로부터 장기 계속교육(7일 이상) 및 단기계속교육(1~2일 이내)시에 설강의 필요성이 제기되리라고 가정되는 교과목을 선정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이수인, 1994; 김일, 1995; 박애경, 1995; 이선경, 1997)에 의하면 계속교육은 제공되는 내용이나 수준에 따라서 수강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속교육시에 필요한 주제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선행연구 및 관련 기관들의 검색도구를 통하여 색출된 주제들 중에서 우리 나라 사서들의 교육환경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장기적인 계속교육에 15개 주제와 단기적인 계속교육에

15개 주제로 나누어 설문에 제시하였다.

1) 향후 계속교육시에 장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선택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택되었다.

(1) 1998~2000년도의 대학 요람 및 교과목 편성표를 참고하여 32개의 4년제 대학에서 설강하고 있으나 8개의 전문대학에서는 아직 설강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 평가론 외 20개 교과목을 식별했다.

(2) 장혜란(1997) 교수가 국내 및 외국 대학에서 설강하고 있다고 조사한 16개 주제 중에서 위의 주제들과 중복되지 않는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외 2개 주제를 식별했다(장혜란, 1999).

(3) 구본영(1998)교수가 국내의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 3개 이상에서 필수 및 선택과목으로 설강하고 있다고 조사한 주제 중에서 위와 중복되지 않는 도서관 자동화 외 2개 주제를 식별하였다(구본영, 1998).

(4) 한복희(1998) 교수가 도서관 유형에 구분 없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한 정보조직론 외 2개 주제를 식별했고, 학부제를 실시하는 9개 대학 중에서 6개 대학이 공통으로 설강하고 있는 19개 주제 가운데 가장 보편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위 주제들과 중복되지 않는 과학기술정보론 외 2개 주제를 총 6개 주제를 식별하였다(한복희, 1998).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식별된 총 33개의 주제 중에서 내용상 중복되는 주제를 제외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5개 주제를 장기적 계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예상 주제로 식별하여 설문에 이용하

였다.

2) 향후 사서들을 위한 단기계속교육시에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제의 선정은 1995년 ~ 2000년 사이에 국·내외기관에서 단기계속교육시에 채택되었던 것으로 다음과 같이 식별하였다.

(1)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도서관(1987)에서 2개(OCLC 검색법, 정기간행물 및 영상물의 목록기술), Queens Borough Public Library(1995)에서 2개(인터뷰 방법, 저작권), British Library (2000)에서 2개(특허 정보, 인터넷 검색기술) 등 모두 6개 주제를 외국의 도서관에서 실시한 계속교육 중에서 식별하였다.

(2)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2000)에서 4개(네트워크 관리, XML소개, 법률과 인터넷, 디지털 도서관의 미래),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2000)에서 3개(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전자레코드의 이해, 영상자료의 취급과 관리), Aslib에서 3개(Web디자인, 파일관리, 인터넷 쇼핑) 등 모두 10개 주제를 학회의 계속교육 중에서 식별하였다.

(3)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2000)에서 6개(독서지도기법, 재무관리, KORMARC의 이해, 자료보존, 목록의 자동화, 정부간행물), 산업기술정보원(1999)에서 2개(STN 검색, 홈페이지 구축),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1999)에서 2개(DB구축기술, 인터넷비즈니스) 등 모두 9개 주제들을 국내 기관의 계속교육에서 식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식별된 26개의 주제 중

에서 15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설문에 이용하였다.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개 문항의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그 구체적인 항목별 내용은 다음 <표 3-1>과 같다.

### 3. 2 데이터의 수집 방법과 절차

#### 3. 2. 1 조사대상과 표본 추출 및 배포와 회수

전국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사서 총 5,652명(한국도서관통계, 1999) 중에서 5,231명(93%)의 인적사항(국립중앙도서관 177명, 국회도서관 154명, 공공도서관 1,777명, 국·공립대학은 889명, 사립대학 1,703명, 전문대 214명, 전문도서관 317명)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확인된 사서(5,652명) 중에서 20%인 1,046명(국립중앙도서관 : 50부 ; 국회도서관 : 40부 ; 공공도서관 : 306부 ; 대학도서관 : 550부 ; 전문도서관 : 100부)을 계통 표집법(systematic sampling)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2000년 12월 18일부터 2001년 1월 9일까지 약 3주 동안 수행하여 총 753부(72%)가 회수되어 그 중에서 응답내용이 불충분하여 자료처리가 어려운 10부를 제외한 74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전산처리는 PC용 통계 패키지인 SPSS/PC+8.0을 사용하였다.

〈표 3-1〉 설문지의 문항 구성

측정 변인	측정요소	문항수	문항번호
개인 직력	도서관의 유형	1	1
	담당 업무	1	2
	근무 경력	1	3
	직위	1	4
	교육 배경	1	5
	최종 자격증	1	6
경험, 현황	비정규계속교육 이수 현황(3년)	1	1
	비정규계속교육 이수 후 주관처의 평가	1	2-1
	비정규계속교육 이수 후 자신의 평가	1	3-2
	정규계속교육 이수 현황	1	4-1
	계속교육 이수 후 인식상의 변화	1	5-1
	계속교육의 장려책 유무	1	6-1
	계속교육의 참여 결정권	1	7
	계속교육의 수강 저해 요인	1	8-1, 2
	연속간행물 구독 현황	1	9-1, 2
	학(협)회 가입 현황	1	10-1, 2
의견, 요구, 제언	계속교육의 필요성 유무	1	1-1
	요구하는 계속교육의 유형	1	2-1, 2
	계속교육의 실시 시기	1	3
	요구하는 매체의 계속교육 유형	1	4
	계속교육의 활성화 요인	1	5
	계속교육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1	6-1
	전담기구의 지원부서	1	7
	계속교육의 국제화	1	8
	필요성 제기와 예상되는 교과목	1	9-1, 2
	계속교육에 대한 제언	1	10

## 4. 데이터의 분석과 고찰

### 4. 1 직력에 관한 분석

문항번호	설문내용	분석결과
I - 1	도서관 유형	대학도서관: 53.6% (398명) 공공도서관: 27.6% (205명)
I - 2	담당업무 (수서, 정리, 열람, 참고, 전산, 관리, 기타)	• 열람업무: 26.5% (196명) • 정리업무: 20.4% (151명) • 전문도서관: 관리업무 25%
I - 3	근무경력	• 16년이상: 33.4% (248명) • 11~15년: 25.9% (192명) • 전문도서관: 1~5년(41.7%)
I - 4	직위	• 초급사서: 52.5% (384명) • 중급사서: 35% (256명)
I - 5	교육배경	• 학사: 60.6% (445명) • 준학사: 20.3% (149명) • 석사, 박사는 전문도서관이 제일 높음
I - 6	자격증 현황	• 2급 정사서: 67.3% (497명) • 준사서: 16.7% (121명)

### 4. 2 계속교육에 대한 경험과 현황

설문 II-1을 분석하면 지난 3년간 실시한 비정규계속교육의 참여도는 전체적으로 응답자 당 평균 약 1.2회로 나타났고, 비정규계속교육 유형 중에서 학(협)회에서 실시한 세미나 및 워크샵 참여가 가장 높은 40.5%로 나타났다.

설문 II-2의 분석결과는 "평가가 있었다"의 응답이 41.2% (306명), "없었다"의 응답이 58.6% (434명)로 조사되었다.

설문 II-2-1의 분석결과는 비정규계속교육의 평가는 33.1%가 발표 및 토론회로, 32.4%가 시험으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설문 II-3의 분석결과는 전체 79.9%가 지

난 3년 동안에 이수한 비정규계속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유용성에 대해서는 국립중앙·국회도서관의 사서들이 가장 높은 88.5%로 나타났고, 공공도서관은 82.7%, 대학도서관은 82.4%로 서로 비슷한 유용성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문도서관의 사서들은 계속교육의 유용성에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지만 부정적인 견해가 다른 유형의 도서관들에 비하여 높은 41.3%를 보이고 있다.

설문 II-3-2의 분석결과 교육내용이 불완전하다고 응답한 사서가 39.9%, 시간의 불충분이 27.0%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의 불완전 문제는 이미 선행연구(김경진, 1987 ; 박정아, 1994)에서도 40% 이상의 사서들이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었다.

설문 II-4의 분석결과는 정규계속교육을 이수 중에 있는 사서들은 17.2%였으나, 비이수 중에 있는 응답자가 82.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수 중에 있는 정규계속교육 현황은 전문도서관이 가장 높은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이 19.1%로 조사되었다.

설문 II-4-1의 분석 결과는 정규계속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사서 126명을 대상으로 석사 학위를 이수하고 있는 사서가 52.4%, 사서교육원 이수가 19.8%로 나타났다.

#### 4. 3 환경적 요인

설문 II-5의 분석결과는 응답자의 46.2%가 “있었다”고 답변을 한 반면에 “없었다”고 답변을 한 사서가 53.8%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측면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56.9%가 긍정적인 측면을 높게 나타내고 있으나 전문도서관 사서들은 긍정과 부정이 같게 나타났다.

설문 II-5-1의 분석결과는 업무추진 능력의 변화가 전체의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긍심의 향상이 27.8%로 높게 조사되었다.

설문 II-6의 분석 결과는 “장려한다”가 58.6%로 “장려하지 않는다” 4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설문 II-6-1을 분석한 결과 “교육 가능한 시간제공”이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교육비 지원”이 26.4%로 높게 조사되었다.

설문 II-7을 분석한 결과는 재직 도서관에

서 계속교육의 참여 결정권은 관장이 30.0%, 소속 부서의 상사가 28.2%, 본인이 25.2%로 큰 차이는 없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46.5%가 관장이 참여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II-8-1을 분석한 결과는 시간적 제약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7.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설문 II-8-2를 분석한 결과는 저해요인으로 도서관 유형에 관계없이 근무시간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5.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이 행정적 지원부족으로 25.3% 순이다.

#### 4. 4 계속교육을 위한 개인적 노력

설문 II-9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비율은 “아니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5.0%(406명)로 “예”라고 대답한 응답자 45.0%(332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설문 II-9-1을 분석한 결과는 본 설문에 응답한 사서는 332명으로 이 중에서 도서관에 입수된 자료를 읽는다고 응답한 사서가 81.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도서관의 사서들은 본인 스스로 구입하여 읽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45.8%나 되어 다른 유형의 도서관 사서들 보다 높다.

설문 II-9-2를 분석한 순위별 결과 읽고 있는 국내 연속간행물의 현황은 「도서관 문화」를 22.1%로 가장 많이 읽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이 「한국문헌정보학회지」로 21.3%로 나타났다.

외국 연속간행물의 경우는 28.3%가 「Lib-

rary Trends」를 읽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은 「Public Library Quarterly」가 23.3%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 Ⅱ-10을 분석한 결과는 68.4%가 학(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학(협)회의 참여율은 전문도서관이 95.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은 공공도서관이 71.2%를 차지하였다. 학(협)회 가입자 508명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협)회의 현황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는 전체 응답기록 778개 중에서 한국도서관협회의 가입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4. 5 계속교육에 대한 의견, 요구, 제언

설문 Ⅲ-1을 분석한 결과 96.8%(719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2%(24명)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도서관 유형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서들이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설문 Ⅲ-1-1을 분석한 결과는 87.9%의 다수가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해서라고 답변하였다.

설문 Ⅲ-2를 분석한 결과는 복수 응답한 기록 빈도 978 횟수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63.2%가 비정규계속교육을 선호하며, 36.8%가 정규계속교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Ⅲ-2-1을 분석한 결과는 응답 빈도 435 횟수 중에서 42.3%가 석사과정을, 상위 자격증에 대한 선호도가 19.8%였으며, 박사과정의 선호도는 15.6%를 차지하였다.

설문 Ⅲ-3을 분석한 결과는 근무시간에 실시하기를 원하는 의견이 다수인 43.3%를 나타

내고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다른 유형의 도서관들과는 다르게 46.1%인 다수가 방학중에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다.

설문 Ⅲ-4를 분석한 결과 응답대상자 다수인 50.8%가 PC 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교수진이 순회하는 이동교육이 20.5%로 조사되었다.

설문 Ⅲ-5를 분석한 결과는 향후 계속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체계”의 확립이 총 평균 3.7%로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의 지속성”이 3.6%와 “전담기구 설치”가 각각 3.6%의 같은 비율로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설문 Ⅲ-6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서가 절대 다수인 94.9%(70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서가 5.1%(37명)로 나타났다.

설문 Ⅲ-6-1을 분석한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58.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협회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17.8%이다.

설문 Ⅲ-7을 분석한 결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701명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교육부가 57.1%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그 다음이 문화관광부로 39.7%가 응답하였다. 도서관의 유형별로 분석하면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은 52.9%, 공공도서관은 67.2%가 전담기구 지원조직을 문화관광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반면에, 대학도서관은 74.0%, 전문도서관은 50.7%가 교육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설문 Ⅲ-8의 분석결과는 외국도서관의 업



무연수가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외국의 학(협)회에서 실시하는 단기교육 및 훈련 과정이 18.1%를 차지하였다.

설문 Ⅲ-9-1을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제시된 장기계속교육의 주제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특정 주제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전체 응답 2,606횃수 중 도서관 자동화가 13.9%, 온라인 검색이 12.5%,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는 장기계속교육 주제임이 분석되었다.

설문 Ⅲ-9-2를 분석하면 인터넷 검색이 15.0%,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가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문 Ⅲ-10을 분석하면 설문 조사자 총 743명 중에서 본 설문의 응답자는 7.9%로 적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가장 높은 응답은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개최”를 희망하는 제안이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5. 결론 및 제언

### 5. 1 결론

본 연구는 현직사서를 위한 정규 및 비정규 계속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진외국의 계속교육 발전과정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국내의 현직사서를 체계적으로 표집하여 계속교육의 현황, 경험, 요구, 의견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교육의 참여는 전체적으로 낮으

며 도서관의 유형과 직무에 따라 다르다.

둘째, 계속교육의 주관처의 평가는 부진하였고, 유용성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며, 저해요인은 시간적인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셋째, 계속교육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부족하며, 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넷째, 계속교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 5. 2 제언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직 사서들의 계속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사서의 계속교육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계속교육에 대한 주관부처별 평가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특성화된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모든 사서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화에 대비하여 사서들의 해외 연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일곱째, 정규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사서들의 계속교육에 관한 설문지

### I. 아래 항목은 선생님의 직력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해당란에 “V”표를 하여 주시고 <기타>란은 직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1. 현재 재직하시는 도서관 유형은 어느 곳입니까?

- ①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 )    ② 공공도서관 ( )  
③ 대학도서관 ( )    ④ 전문도서관 ( )  
⑤ 기타 : \_\_\_\_\_

2. 현재 담당하고 계신 업무는 어떤 종류입니까?

- ① 수서 업무 ( )    ② 정리 업무 ( )    ③ 열람업무 ( )  
④ 참고 업무 ( )    ⑤ 전산 업무 ( )    ⑥ 경영, 관리 업무 ( )  
⑦ 기타 : \_\_\_\_\_

3. 도서관의 근무 경력은 몇 년이신가요?

- ① 1~5년 ( )    ② 6~10년 ( )    ③ 11~15년 ( )    ④ 16년 이상 ( )

4. 현재의 직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초급사서 ( )    ② 중급사서(계장) ( )    ③ 고급사서(과장이상) ( )

5. 선생님의 최종 문헌정보학 교육 배경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준학사 학위 ( )    ② 학사 학위 ( )  
③ 석사 학위 ( )    ④ 박사 학위 ( )

6. 현재 소지하신 자격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준사서 ( )    ② 2급 정사서 ( )  
③ 1급 정사서 ( )    ④ 기타 : \_\_\_\_\_

### II. 아래 항목은 선생님의 계속교육에 대하여 경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해당란에 “V”표를 하여 주시고 <기타>란은 직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1. 지난 3년 사이에 선생님께서 비정규계속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셨나요?





② 외국연속간행물 : \_\_\_\_\_ 종  
 연속간행물명 : \_\_\_\_\_

10. 현재 선생님께서 참여하고 계신 학(협)회는 어느 곳입니까? (복수선택가능)
- ① 한국문헌정보학회 ( )                      ② 한국정보관리학회 ( )
  - ③ 서지학회 ( )                                  ④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
  - ⑤ 한국도서관협회 ( )                      ⑥ 한국대학도서관협의회(국·사립) ( )
  - ⑦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        ⑧ 기타 : \_\_\_\_\_

Ⅲ. 아래 항목은 선생님의 계속교육에 대하여 의견, 요구, 제언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해당란에는 “V”표를 하여 주시고 <기타>란은 직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1. 선생님께서는 현재 계속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1-1로]                              ② 필요하지 않다 ( )

[1-1]이라면 그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도서관 직원으로서의 책임강화를 위하여 ( )
- ②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하여 ( )
- ③ 도서관에서 현 위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 )
- ④ 사회적 인식강화 및 경제성 증대를 위하여 ( )

2. 선생님은 다음 중에서 어떤 유형의 계속교육을 원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 ① 상위학위 및 자격증 획득이 가능한 정규교육 [2-1로]
- ② 업무에 필요한 비정규 단기교육 [2-2로]

[2-1]이라면 다음 중에서 어떤 유형의 정규계속교육 이수를 선호하고 계십니까?

- ① 편입학을 통한 정규 학사과정 ( )
- ② 사서교육원을 통한 상위 자격증 획득 ( )
- ③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과정 ( )
- ④ 독학사를 위한 통신교육 ( )
- ⑤ 석사 과정 ( )

⑥ 박사 과정 ( )

[2-2]이라면 다음 중 어떤 유형의 비정규계속교육을 원하십니까?

- ① 직장에서 실시하는 단체 보수교육 ( )
- ② 단기연수 및 강습교육 ( )
- ③ 학(협)회서 실시하는 워크샵 및 세미나 ( )
- ④ 특정 주제별 업무회합 ( )
- ⑤ 견학이나 방문을 통한 실습과정 ( )
- ⑥ 상사로부터 받는 개별 업무교육 ( )
- ⑦ 기타 : \_\_\_\_\_

3. 비정규계속교육의 실시는 어느 때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근무시간중 ( )                      ② 퇴근후 ( )                      ③ 주말 ( )
- ④ 방학중 ( )                              ⑤ 기타 :

4. 앞으로 어떤 매체의 계속교육이 개발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 ① 방송을 통한 통신교육 ( )                      ② CD-ROM과 같은 뉴미디어 교육 ( )
- ③ PC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 )                      ④ 교수진이 순회하는 이동교육 ( )
- ⑤ 기타 : \_\_\_\_\_

5. 향후 계속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로 기입)

- ① 적절한 주제 선정 ( )                      ② 교육수준의 다양화 ( )
- ③ 교육의 지속성 ( )                              ④ 비정규교육의 확대 ( )
- ⑤ 충분한 지원 체계의 확립 ( )                      ⑥ 보상 제도의 확대 ( )
- ⑦ 전담기구의 설치 ( )                              ⑧ 정규교육의 확대 ( )
- ⑨ 기타 : \_\_\_\_\_

6. 우리나라의 사서들을 위한 계속교육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6-1로]                              ② 필요하지 않다 ( )

[6-1]이라면 어떤 조직에 설치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립중앙도서관 ( )                              ②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 )



⑬ 특허 정보 ( )

⑭ KOMARC 이해

⑮ 홈페이지 구축 ( )

⑯ 기타 : \_\_\_\_\_

10. 선생님께서 계속교육에 대하여 본 설문 외에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아래에 기술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8. 『교육법전』. 서울: 서울주보사.
- 교육부. 2000. 『교육법전』. 서울: 교육주보사.
- 구분영. 1998. 문헌정보학에서의 인공지능과 전문가 시스템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2): 211-232.
- 金慶大. 1990. 『司書職의 繼續教育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경진. 1987. 『특수도서관사서의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국현. 1998. 학점제 도입과 평생교육의 활성화. 『교육개발』, 112(3): 26-29.
- 金丙柱. 1985. 司書職의 發展을 위한 繼續教育. 『국회도서관보』, 22(4): 17-27.
- 金 逸. 1995. 『專門圖書館 司書의 繼續教育에 關한 研究 - 서울지역 專門圖書館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金楨根. 1987. 司書職의 專門職性과 繼續教育. 『국회도서관보』, 24(4): 19-30.
- 박애경. 1995. 『수도권 사립 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박정아. 1994. 『사서의 계속교육 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사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조선일보』. 2000. 사이버대학 내년 3월 개교 12월 1일.
- 산업기술정보원. 정보교육, 1999. [Online]. [Cited 1999. 8. 19.]. <<http://www.kiniti.re.kr>>
- 『교육복지신보』. 1998. 시간제 학생등록제, 2월 11일.
- 엄영애. 1997. 미국, 영국, 한국 사서직 교육의 비교 『圖書館學論叢』, 27: 1-24.
- 尹昭晶. 1997. 『私立大學校 圖書館司書職 職員의 繼續教育 實效性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선경. 1997. 『대학도서관 목록사서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



- 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은형. 1998. 시간제 학생 등록제도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논문집』, 13(6): 109-137.
- 이수인. 1994.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李重堯. 1978. 圖書館員 再教育의 必要性 『국회도서관보』, 15(6): 13-17.
- 李振榮. 1990. 司書職을 위한 再教育管理 『도서관』, 45(1): 5-24.
- 장혜란. 1997. 문헌정보전문직을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 현황과 요구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1): 1-28.
- 趙浩一. 1992. 司書의 繼續教育에 關한 考察 『啓明研究論叢』, 10: 91-109.
- 한국교육신문사. 1998. 『한국교육연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과정. 1999. [Online]. [Cited 1999. 5. 30].  
<<http://www.keris.or.kr>>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실무교육과정. 2000. [Online]. [Cited 2000. 8. 21].  
<<http://www.dpc.or.kr/edu>>
- 한국사서교육원. 사서직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안내. 1999. [Online]. [Cited 2000. 9. 2].  
<<http://slisnet.skku.ac.kr/~edu>>
- 한복희. 1998. 학부제하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개발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4): 5-29.
- 本田千春. 1997. 國立國會圖書館における人材育成. 『圖書館雜誌』, 91(5): 325-328.
- 伊藤弘子. 1997. 都立高等學校司書會の研修. 『圖書館雜誌』, 91(5): 337-338.
- 中國國家圖書館. 學會簡介. 2000. [Online]. [Cited 2000. 9. 1].  
<<http://www.nlc.gov.cn/disk4/xuehui/003.htm>>
- 川瀬正幸. 1997. 大學圖書館職員長期研修. 『圖書館雜誌』, 91(5): 332-333.
- 土師裕子. 1997. 岡山縣大學圖書館員研修會. 『圖書館雜誌』, 91(5): 335-336.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8. Guideline for Quality in Continuing Education for Information, Library and Media Personal, Chicago: ALA Continuing Education Subcommittee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Education.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Steering Committee. 1999. Report of the Steering Committee on the Congress on Professional Education. In Congress on Professional Education, June 1999. [Online]. Apr.30~31. [Washington D.C.]. [Cited 1999. 9. 14].  
<<http://www.ala.org/congress/crprof.html>>.
- Aslib. Professional Development Training: Aslib Training. 1999. [Online]. [London]. [Cited. 2000. 5. 30].  
<<http://www.aslib.co.uk/training/index.html>>.
- ASIS. Continuing Education Courses. 1999. [Online]. [Maryland]. [Cited 2000. 3. 2].  
<<http://www.asis.org/CE/catalog/electronicpublishing.html>>.

- Boydston, Jeanne M. K. 1992. "Continuing Education and Staff Development Among Serials Catalogers." *The Serials Librarian*, 22(1~2): 17-38.
- Burgin, Robert. 1992. "Public Librarians and Continuing Education: A Motivational Study." *Public Library Quarterly*, 12(4): 29-41.
- Carter, Catherine A. 1987. "On-The-Job Training for Cataloging Librarians: A Case History of a Formal Approach to Training."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7: 79-82.
- Crowley, Bill. 1996. "Redefining the Status of the Librarian in Higher Educatio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7(2): 112-118.
- Dudley, Edward. 1995. "Professional Education in the UK Yesterday and Today."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27(3): 127-130.
- IFLA Directory. 1996~1997. The Hague: IFLA Headquarters.
- IFLANET. CPERT Round Table Medium Term Programme 1998~2001. 2000. [Online]. [Cited 2000. 9. 1]. <<http://www.ifla.org/vll/rt7/news/apr00.htm>>.
- Josephine, Riss Fang. 1995. World Guide to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IFLA Publication 72/73, London : K.G. Saur.
- National Library of China, Anniversaries, 1999. [Online], [Cited 2000. 9. 1], <<http://www.nlc.cn/brochure.htm>>.
- Rusch-Feja, Diann. 1997. "Librarian Education for Utilizing Now Technologies Including Networked Information Sources." *Resource Sharing & Information Network*, 12(2): 31-47.
- SAA. Spring 2000 Professional Education Workshop. 2000. [Online]. [Chicago]. [Cited 2000. 4. 27]. <<http://www.archivists.org/history.html>>
- Smith, Linda C. 1996. "Interdisciplinary Multiinstitutional Alliances in Suppor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Health Sciences Librarian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4(4): 560-568.
- Stone, Elizabeth W. 1974. *Continuing Library Education: As Viewed in Relation to Other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Movement*. Washington: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 Tjournas, Renee. 1995. "A Pedagogical Model: The Role of Reference Workshops in the Continuing Education of Public Librarians." *Public & Access Services Quarterly*, 1(2): 51-75.
- Varleis, Jana. 1999. "The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Role of ASIS: Fifty Years of Learning Together,

- Reaching Out, Seeking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0(11): 1032-  
1035.
- Weingrand, Darlene E. 1992. "Continuing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3): 249-253.
- Xiaoying, Dong. 1997. "Transi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in China: Problems and Perspective."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29(1): 1-12.